

제16편 - 제3신앙촌시대(제3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61회)

제16편
제3신앙촌시대(제3부)
- 나는 상제(上帝) 하나님이다
1) 나는 땅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상제 하나님이다
2) 감람나무는 상제 하나님
3)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1서4:8)
二. 삼위일체로 완성되시어 오신 하나님
1) 또 다른 한 분의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2)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성하러 오신 영모님

제3신앙촌시대(제3부)

一. 나는 상제(上帝) 하나님이다

1) 나는 땅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상제 하나님이다

영모님이 이끄시는 3신앙촌의 후반부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다. 결혼을 억지로 하라고 독려했던 영모님은 돌연 다 이혼하라고 강요하셨고, 그때에는 이미 자식들을 두세 명씩 둔 때였으니 도저히 이혼하라는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을 때에 또 갑자기 예수가가 짜세주요 대 마귀라고 치셨다.

거기다가 영모님은 또 하나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는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다들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기독교적인 사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신앙촌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인들이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로 알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기만 하면 죽는다고 배워 온 것이다. 그런데 영모님은 당신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큰일 났다고들 생각하였다.

한참 후에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렇게 이해 못할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왜냐하

면 영모님은 동방의인이 아니신가. 동방의인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이다. 열국 왕들을 동방의인 발 앞에 굴복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사41:2). 그렇다면 지구 상에서는 동방의인의 권세를 능가할 능력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땅위에서는 동방의인이 왕인 것이다. 그렇다면 ‘동방의인이신 영모님이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말씀이 된다는 데 생각이 미쳤지만 계속 소화가 되지 않는 무언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돌연 영모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서 쏟아내시는 것이다. “나는 땅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상제 하나님이다”-1981년 6월 6일 축복일 말씀

영모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下唯我獨尊)”이라고 보충 설명하셨다. 천상천하에 유일한 상제 하나님이 당신 영모님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나 영모님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제법 그럴 듯하게 해석을 얻어 좋아했던 것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이때에 영모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떨어져 나갔다.

2) 감람나무는 상제(上帝) 하나님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下唯我獨尊)이라는 말씀은 석가모니가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의 뜻은 ‘천지 간의 유일한 상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천지간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고 오직 당신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자신을 상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박태선 영모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며 따라 온 사람들이 아닌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제 땅의 하나님이란 것이 감람나무의 이름과 또한 이름을 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라 하는 것이 감람나무인 것이다” 영모님의 이 말씀(1981년 12월 28일 말씀)은 묵시록 14장에 있는 “내가 또 보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같이 있는 자가 144000이니 그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쓴 것이 있더라(묵14:1)”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에는 144000의 수가 그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모님은 하나님이 감람나무의 이름과 또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라고 했다. 왜 말씀의 차이가 나는 것인가? 사실 144000의

숫자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숫자이다. 고로 144000이라고 한 성경이나 그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나 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니 이 말씀은 영모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대명사이다. 지금까지 영모님이 감람나무를 예수의 종이라고 쓰셨을 때 오시다가 때가 되매 감람나무가 예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대명사임을 처음으로 밝히고 계신 것이다. 영모님은 당연한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타성에 젖어 있어 깨닫지를 못하고 놀랐던 것이다.

영모님의 설명을 보면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말한 것이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표시이다. 그리고 144000은 이미 밝힌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모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으니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모님이 땅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상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영모님은 당신이 상제 하나님이면서도 예수의 종이 라고 하면서 또는 감람나무라고 가려서 나타내시니 마귀 사람들이 영모님의 실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분이 이제 때가 되어 당신의 실체를 알리고 발표를 하니 다들 거부감을 느끼면서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기약이 차기 전에는 감람나무라는 것이 노출이 안 되었다(신앙신보 82.3.1)”이 말씀은 당신이 감람나무라고 증거를 하면서도 감람나무란 예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뜻한다. 영모님께서도 당신의 존재를 알려야 할 때가 되시매 감람나무는 상제 하나님이라고 발표를 하시게 된 것이다. 영모님은 천상천하의 유일한 상제 하나님이시며 감람나무 원체이다. 감람나무 원체는 두 가지인 아담과 헤와를 찾아 키워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을 시키러 오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下唯我獨尊)인 유일한 하나님인 것이다.

3)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1서4:8)

영모님은 당신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후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서 영원무궁토록 기가 막힌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다. “어떤 부모가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음란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 부모는 그 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쁜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그 딸을 공공 무여서 바윗돌 위에 올려놓고 돌로 ‘탕’ 쳐서 죽일 것인가? 그와

같이 하는 부모는 없는 것이다. 그 부모는 자식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그 자식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온전한 자식이 되도록 타이르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끝도 한도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를 하셨다. “그런고로 사랑의 하나님은 일곱 번씩 일흔 번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끝도 한도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셨다.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아담도 치지 않고 화도 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셨다.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은 영모님의 성품은 무섭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불호령을 떨어뜨리는 분이기에 때문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인자한 모습으로, 야단도 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실 것인가? 의문이 들었다. 영모님의 그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신 후 며칠 동안은 항상 웃음으로 사랑이 넘치시는 인자한 모습을 하셨지만 다시 옛날의 무서운 영모님의 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야단을 치시고 불호령을 터뜨리셨다. 다들 영모님의 그 성품이 어디 가겠느냐고 말하면서 웃어버렸다. 물론 영모님을 비웃는 웃음이 아니고 다만 수 십 년간 영모님을 따르면서 익숙해진 영모님의 성품을 도리어 영모님에 대한 정이 넘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들 말하면서 웃었던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50회

감로해인 금척(金尺)의 역사를 다 이루시니 만민들이 두 팔 벌려 천호만세(天呼萬歲)를 부르리라

弓乙論(五) 궁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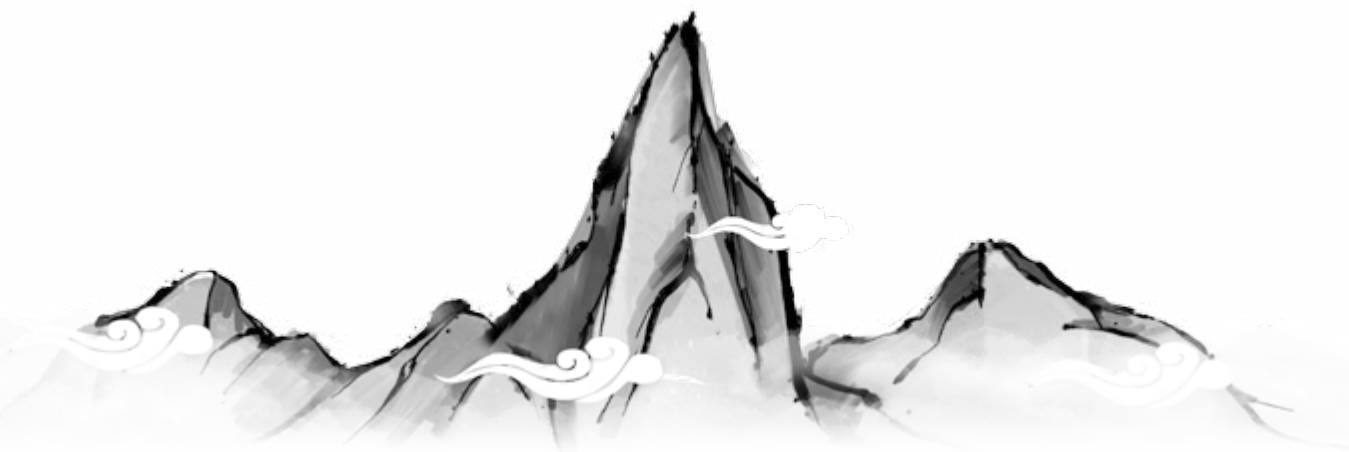
仙李一枝誰保命 선이일자수보명
柿林扶李守從之生 사람부이수종지생
不顧聖人無福可歎 불고성인무복가탄

신선(神仙) 즉 목자(木子=李=감람나무의 아들)의 한 가지가 되면 누구든지 목숨을 보전하리라. 시림(柿林) 감람나무의 숲으로 감람나무를 심기는 무리를 뜻함)이 감람나무의 후계자인 목자를 돕고 자유유법을 지키면서 따르면 영생하게 되리라. 그러나 성인(聖人) 되시는 목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복이 없으니 한탄하리이다.

※ 이(李):李를 파자(破字)하면 木子(목자)가 된다. 위에서 나무 목(木)은 감람나무(柿)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자(木子) 즉 목인(木人: 감람나무)의 아들인 목운(木運) 천사 박태선님의 후계자인 금운(金運) 천사 조희성님에 해당된다.

李鄭黑猴 이정흑후
申望綠蛇頭尾 신망록사두미

태조 이성계와 삼봉 정도전이 임신년(壬申年; 黑猴)인 1392년에 조선왕조를 개창하였느니라. 申(신)은 흑후(黑猴)의 임신년과 같은 뜻이요 두미(頭尾)의 머리 두(頭)에 해당하는 조선 건국시기이며, 望(망)은 파자(破字)로



‘亡王(망월왕)’이니 이씨 왕조가 망한다는 뜻이네. 綠蛇(녹사)는 을사년(乙巳年)으로 두미(頭尾)의 꼬리 미(尾)에 해당하므로 을사년인 1905년에 이씨조선(李氏朝鮮)이 끝나리라.

※ 참조: 천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은 각각 오색(五色)·오행(五行)과 연관된다. 갑(甲)·을(乙)은 푸른색(靑)의 목(木), 병(丙)·정(丁)은 붉은색(赤)의 화(火), 무(戊)·기(己)는 누런색(黃)의 토(土), 경(庚)·신(辛)은 백색(白)의 금(金), 그리고 임(壬)·계(癸)는 검은색(黑)의 수(水)로 통한다.

鄭初飛鳥鳩月 정초비조구월
五七四年 오칠사년

민본세상을 꿈꾸던 정도전의 염원이 조선개국 초(初; 1398년) 왕자의 난으로 그해 9월(飛鳥鳩月; 음력 9월)에 정종 방과와 등극과 함께 물거품이 되었

노라. 五七四年(오칠사년)의 五(오)는 이씨왕운(李氏王運) 오백년을 뜻하고 七四(칠사)란 7X4로 28대 왕이 마지막 왕운(王運)이라는 뜻이네.

※ 五七四年(오칠사년); 격암유록 말은 「太神歲壬申乙巳運(태신세임신을 사운) 百五而七四始末(백오이칠사시말), 이란 내용과 부합된다. 태신(太神)이 되는 태조 이성계가 임신년(壬申年)인 1392년에 이씨조선을 세웠고, 을사년(乙巳年)인 1905년에 500년 왕운(王運)이 28대 왕으로 끝으로 망할 것이요(百五而七四始末)라는 뜻이다. 즉 이씨왕운(李氏王運)이 1대 태조에서 27대 순종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12년 집권의 이승만(李承晩)까지 계산하여 28대라고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말은 「李朝之亡何代(이조지망하대) 四七君王(사칠군왕) 李花更發何之年(이화갱발하지년) 黃鼠之攝政也(황서지섭정야)」라고 하였던 것이니, 풀이하면 이씨조선은 몇 대에서 망하는가?

28대왕에서 망하느니라. 이조의 꽃이 다시 피는 때는 언제인가? 황서(黃鼠) 즉 무자년(1948)에 이승만 대통령이 섭정하는 때이니라.

天受禪禪鷄龍 천수선요계룡
太祖登位飛上 태조등위비상
玉燈秋夜戊己之日 옥등추야무기지일
海印金尺天呼萬歲 해인금척천호만세

천제(天帝)께서 선위(禪位)한 요(堯) 임금과 같은 계룡(鷄龍; 십승진인)이 명실상부한 태조로 임금의 자리에 올라(登位) 24년간 역사하신 후 비상(飛上)하리라. 그 다음에 십승진인 조희성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생을 추수하시고, 영원한 안식(安息=夜)이 시작되는 날이 무기(戊己)에 해당하는 양년(兩年) 중 하나이니라. 비로소 금운천사(金運天使)께서 감로해인의 분신(分身)으로 자로 재는 뜻이 금척의 역사를 다 이루시니, 만민들이 두 팔을

치켜들고 ‘조희성 하나님!’이라고 연호(連呼)와 동시에 만세를 부르게 되리라.

※ 참조: ① 계룡(鷄龍); 말은 「鷄龍何意變天地(계룡하의변천지)」의 구절을 풀이하면, 계룡은 무슨 뜻인가? 썩고 죽는 세상(천지)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 하늘 새 땅(신천지=천당, 극락)으로 변화시켜 주는 십승(6도8궁 금운천사)이니라.

② 옥등추야(玉燈秋夜); 「玉燈秋夜三八日(옥등추야삼팔일) 南北相和太平歌(남북상화태평가) 欲識養生保命處(욕식상생보명처) 吉星照臨眞十勝(길성조림진십

성)」, 격암유록 초장 참조

③ 금척(金尺); 조선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즉위하기 전, 꿈에 금척(金尺; 황금으로 만든 자)을 얻어서 창업(創業)하였다 함. 마찬가지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가 꿈에 신인(神人)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보물로서, 신이 이것을 건네주면서 “이 금척은 왕위(王位)의 신표(信標)이니 길이 자손에게 전할 것이며, 만일 백성 가운데 병으로 고통 받는 자가 있으면 이 자로 재어 치우하라”고 하였다 한다.*

吉星照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